최경환, '5·18 망언' 고소인 조사

김순례 "5·18 유공자 괴물 집단" 등 논란
민병두·설훈·최경환 의원 등 고소장 제출
민병두 "5·18 망언, 무관용주의 처벌해야"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지만원씨를 고소한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11일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그는 "광주에서, 사법부에서 전두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5·18 유공자인 두 의원은 앞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 등의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의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과 지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과 관련한 소회를 묻자 최 의원은 "전두환은 5·18 망언의 뿌리"라며 "당시에 전두환이 '폭동'이라고 한 게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지씨의 망언은) 대단히 위중한 사건"이라며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사법적으로 확립된 내용에 대해 국회 안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의원 3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황교안 신임 자유한국당 대표가 얼버무리며 (해당 의원 징계와 관련해) 시간을 벌려고 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무시한 행위를 자당 의원이라고 감싸면 자유한국당은 민주정당으로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5·18 망언은 민주화운동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쌓아 올린 역사와 진실의 탑을 파괴하려는 것"이라며 "국민과 나라를 분열시키려는 분열주의가 발 붙이게 해선 안 된다. 엄중한 조사를 통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발언들은 5·18 민주화운동에 나선 광주 시민에 대학 모독이고 구체적으론 북한군에 의해 이용당했다고 규정당한 유공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반민족 반역사적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주의로 처벌해야 한다"며 "오늘날 전두환을 민주주의의 영웅이라고 칭하는 사람까지 생겼다. 철저히 무관용주의로 임하는 게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태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달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공동 개최했다.

김진태 의원은 영상메시지를 보내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며 "힘을 모아 투쟁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공청회에 직접 참석한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종명 의원은 "5·18 사태는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 운동이 된 것"이라며 "과학화된 사실을 근거로 북한군 개입 여부를 하나하나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온 지씨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되풀이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5·18 유공자인 민 의원, 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등은 지난달 14일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 내려보냈다.

뉴시스

길가에 뿌려진 전두환 질책 피켓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시민들이 법원 인근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질책하는 피켓이 뿌려져 있다.

광주법원 안팎서 5월 단체 항의집회 "전두환 엄벌 촉구"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린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한 11일 광주시민들이 항의시위를 벌이며 엄벌을 촉구했다.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회원 등 50여명은 전씨가 광주지법에 이르기 직전부터 법원 안팎에서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날 낮 12시34분 전씨가 탑승한 차량이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광주지법 후문 쪽에 도착했다.

전씨의 차량이 법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5월 단체 일부 회원이 항의하며 법원 출입문 안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이 제지했다.

광주지법 법정동 후문 앞에 모인 5월 단체 30여 명은 '5·18 진실을 밝히라', '전두환은 진실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전두환 구속으로 사법정의 실현' 등의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1980년 5월 당시 참상이 담긴 사진과 함께 '전두환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면 이완용은 근대화의 아버지다'라고 적힌 조롱섞인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법정동 앞으로 자리를 옮긴 이들은 오른손을 거세게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과 '광주출정가'를 제창했다.

이어 '전두환은 물러가라', '전두환은 사죄하라', '학살책임자 전두환을 구속하라', '전두환 구속으로 오월정신 계승하자' 등의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전씨는 법정동 2층 증인지원실에 머물며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전씨가 항의 구호를 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 인근 광주 동산초등학교에서는 점심시간을 맞은 학생들이 복도 창문에 모여 '전두환 나쁜놈', '전두환은 물러가라'를 따라 외치기도 했다.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광주시민들은 감정적인 대응이 재판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이다"면서 "전두환씨가 광주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적어도 '잘못했다. 내가 죄를 졌다', 말 한마디만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전씨의 사과 한 마디면 광주시민들의 응어리가 풀릴 것이고 5·18진상규명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씨는 법원에 들어가면서 "광주시민에게 한 말씀 해달라.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왜 이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광주시민에게 사과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인상을 쓰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주춘정 기자

이란, 공개구혼 후 포옹한 커플 체포

이란 서부 아라크의 한 쇼핑센터에서 군중들의 환호 속에 공개 구혼한 남성과 이를 받아들인 뒤 서로 포옹한 여성이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국민들의 거센 분노와 항의를 부르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지난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SNS에 게시된 동영상은 장밋꽃잎으로 장식된 하트 문양 속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반지를 건네며 공개구혼하고 이를 받아들인 여성 커플이 포옹하자 군중들이 축복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들의 공개 구혼은 이달 초 이루어졌다.

그러나 행복에 겨운 이 커플은 곧바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슬람 규율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란의 이슬람 법률은 이성 간의 공개적인 애정 표현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란 마르카지주의 마흐무드 칼라지 경찰 부국장은 파르스 통신에 이들 커플이 공중의 요구에 따라 체포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커플이 부패한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커플은 체포된 후 얼마 안 돼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지만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들의 체포 소식은 소셜미디어에서 공개구혼과 이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 네티즌은 트위터에 "불쌍한 이란 청춘들! 축복을 받기는 커녕 체포돼 보석금을 내야 하다니"라고 한탄했다.

많은 네티즌들이 부패나 강도 같은 범죄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도 범죄냐고 항의하고 있다.

또다른 네티즌은 결혼과 같은 개인적인 일을 카메라로 촬영해 SNS에 올리는 것은 쓸모없는 짓이라고 비난했다.

'김정남 암살' 용의자 시티 아이샤 석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한 혐의로 기소돼 2년간 구금됐던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가 11일 말레이시아 검찰의 기소 취하로 석방됐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이날 검찰의 기소 취하에 따라 시티 아이샤를 석방했지만 기소 취하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아이샤는 곧바로 법원 밖으로 안내돼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올라탔다.

감정에 격한 아이샤는 기자들에게 "오늘 아침에야 석방될 것이란 소식을 들었다. 매우 놀랍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루스디 키라나 말레이시아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는 말레이시아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시티 아이샤와 함께 기소된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에 대한 재판은 아이샤 석방 이후 오전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다.

시티 아이샤와 도안 티 흐엉은 2017년 2월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독극물 VX를 발라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이들은 그러나 몰래카메라 TV 프로에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해 왔다.

소방관 장례식서 美 메인주 소방서장 사망

미국 메인주의 한 소도시 소방서장이 동료를 불길에서 구하다 순직한 소방관의 장례식에서 쓰러진 뒤 사망했다고 메인주의 재닛 밀스 주지사가 발표했다.

옥스퍼드시의 게리 새코 소방서장은 뉴잉글랜드 전역의 소방대원들 수백명 등 수천명이 참석한 조엘 반스 소방관의 장례식에서 응급상태에 빠졌다가 10일(현지시간) 병원에 옮겨진 뒤 숨졌다. 반스 소방관은 이 달 초 발생한 4급 규모의 대화재에서 동료를 구하다가 중화상을 입고 목숨을 잃은 소방관이다.

보스턴 글로브지는 메인주 메디컬 센터가 이 날 포틀랜드에서 거행된 장례식에서 쓰러진 새코 서장이 입원한 병원이며 입원 뒤에 사망이 선고되었다고 보도했다. 병원 대변인 매트 위켄하이서는 "동료를 위해 목숨을 바친 소방관의 장례식에서 쓰러진 옥스퍼드시의 게리 새코 서장이 동료 소방관들의 애도 아래 숨을 거두었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사망 경위는 말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으로 메인주의 구급대와 소방대원들은 2명의 동료를 잃은 슬픔을 맞게 됐다고 병원 대변인은 말했다.

버위크에서 온 소방서장 데니스 플랜테는 이번에 장례식을 치른 반스가 자신의 영웅이라며 애도를 표했다.